

---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4년 3월 30일

발행인 : 현 명 호

인쇄일 : 2014년 3월 30일

주 소 :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격 및 개인차 연구회 (302동 B107호)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전 화 : 070-4806-3331 팩스 : 02-816-5124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이민규(경상대학교) 이인혜(강원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조성근(충남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

**Vol. 19, No. 1.**

**March. 2014.**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7@hanmail.net)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in-Kyu Rh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yae Yi(Kangwon National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Gun C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국제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총무이사 조 성 근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학술이사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재무이사 심 은 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 진 경 (송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 용 희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학교 교육대학원)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감 사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김 교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주 해 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간사 홍 혜 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집간사 김 선 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 19 권 제 1 호

### [개관논문]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 ..... 박 지 선 / 1

### [경험논문]

마음챙김 요가와 요가니드라가 마음챙김, 스트레스 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양 희 연·조 옥 경 / 23

마음챙김에 기초한 관계증진 훈련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정 화 숙·정 봉 교 / 43

웰빙인지기법이 버스 운전기사들의 스트레스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 민 경 은·김 정 호·김미리혜 / 63

마음챙김 명상이 중년 여성의 화병 증상,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유 승 연·김 미 리 혜·김 정 호 / 83

긍정 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 정 지 현·손 정 략 / 99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Knowledge of Evidence-based Services Questionnaire ..... Chad Ebesutani · Sungwon Choi / 119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정 소 영·김 종 남 / 147

Parental Knowledge of Peer Networks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Ethnic Group Comparisons within a National Study of Adolescents ..... Jieun Lee · Lisa Jordan-Green · Hyungcho Lee / 16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조절곤란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 양 경 은·박 기 환 / 18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 류 혜 라·박 기 환 / 203

알코올 중독자의 정서인식력과 자기개념,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 박 현 립·박 현 진·장 문 선·구 본 훈·배 대 석 / 219

다이어트, 섭취귀인양식 및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서적 섭식과 외부단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 ..... 박 윤 선·최 윤 경 / 235

흡연갈망과 금단증상이 금연유지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금연효과지각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김 지 회 · 이 영 호 / 253
Big-win과 Big-loss의 경험 유/무가 문제성 도박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	목 현 수 · 박 기 뽐 · 강 성 군 · 황 순 택 / 271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시각조망과 해석 수준의 효과 .....	최 성 은 · 최 훈 석 / 283
양육시설아동들의 인지능력 특성 .....	이 선 주 · 조 혜 수 · 오 상 우 / 303
성인에착과 실연 스트레스 및 실연 후 성장의 관계: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 .....	임 지 준 · 권 석 만 / 321
노인의 신체건강과 주관적 행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의 역할 .....	김 혜 경 · 서 경 현 / 353
완벽주의, 반추, 우울의 관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	박 지 연 · 이 인 혜 / 371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	정 선 경 · 정 남 운 / 387

**[Brief Report]**

아주 연민사랑척도 개발: Sprecher와 Fehr의 Compassionate Love Scale의 한국판 단축형 .....	김 완 석 · 신 강 현 / 407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및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 진 영 / 421
신체손상을 입은 산업재해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	이 해 경 · 서 경 현 / 431
여대생의 섭식 조절 행동에 대한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 검증 .....	이 미 령 · 신 용 균 / 443

## 알코올 중독자의 정서인식력과 자기개념,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sup>†</sup>

박현립 박현진  
마더스병원

장문선<sup>‡</sup>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구본훈 배대석  
영남대학교병원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의 정서인식력 차이를 알아보고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이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35명과 정상군 35명을 대상으로 정서인식력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와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중독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정서인식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슬픔, 혐오, 놀람의 정서에 대해서 더 낮은 정서인식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기개념에 대해서는 신체적 자기개념과 가정적 자기개념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문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코올중독 환자군과 정상군 각각의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정서인식력과는 부분적으로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알코올 중독자,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

<sup>†</sup> 본 논문은 제1 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문선, (950-716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Tel: 053-950-5244, E-mail: moonsun@knu.ac.kr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을 일시적으로나마 없애고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쉬운 방법 중 하나로 술을 마시게 된다. 건강한 성인에게 적절한 음주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음주 조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에게 술은 더 이상 대인관계의 원활유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해 과음이나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어 있고 전체 인구 중 1/3 정도가 적극적인 음주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표된 바 있을 정도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보건복지부, 2008).

술에 대한 조절능력을 잃은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 대인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장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수준에 이르면 사회적 음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알코올 중독의 상태가 된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인 행동장애로서, 건강은 물론 직업상실, 가정파탄, 경제적 궁핍, 위법행위 등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에 대한 통제력 불능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 중독환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고 범행대상이 되기 쉬우며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환자는 지위상실과 역할상실을 경험하고 자기개념에 손상을 가져오며, 통제력 상실과 더불어 반복되는 재발의 결과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동반된 자기 비난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박현숙, 도은영, 1999). 또한 알코올 의존의 재발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퇴원 후, 6개월 이내 재발율이 60% 이상이며 치료효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됨에 따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성상경, 방양원, 함웅, 1993). 실제로 알코올 중독환자는 알코올 해독 치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주변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경험하며, 음주 상태일 때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인관계문제와 사회적 기술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xon, Tivis, & Parsons, 1992; Duberstein, Conwell, & Cainem, 1993).

최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대한 정서 인식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타인의 정서인식력은 타인의 말이나 표정, 행동 등을 통하여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고 주위상황을 해석하여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감정입입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Carton, Kessler와 Pape(1999)은 우리가 평소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의 정서나 사고, 느낌을 해석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비언어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끄는 기본이 된다고 하였으며 Patterson(1999)은 상대방의 목소리나 얼굴표정에 담긴 정서를 해석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라 밝혔다.

그러나 Monnot, Nixon, Lovallo와 Rosso(2001)

는 알코올 중독환자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며 알코올 중독환자가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또 Philippot 등(1999)은 최근 해독과정을 마친 알코올 중독환자도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데 광범위한 결함이 있다고 하였으며 분노, 슬픔, 행복, 혐오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얼굴 자극의 정서적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Oscar-Berman, Hancock, Mildwordf, Hunter, & Altman-Wwber, 1990; Philippot et al., 1999; Kornreich, Blairy, Philippot, Hess et al., 2001)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서인식능력의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분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왜곡하여 대인관계와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얼굴표정인식을 통해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을 알아본 이전의 연구 결과들은 각 정서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해 매우 여러 가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Philippot(1999)는 알코올 중독환자가 슬픔이나 혐오의 정서를 분노나 경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안하였고 Frigerio, Montagne, Murray와 Perrett(2002)의 연구에서는 슬픔의 정서가 분노나 혐오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Dursun(2007)은 알콜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무표정한 얼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나, 혐오를 나타낸 표정에는 정상인보다 더 과대적으로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부정적 정서 인식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

히 이러한 양상은 알코올 중독환자의 내부적인 취약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즉, 부정적인 자기상 및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된 탐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신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자신에 대한 지각이다. 즉 자기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인식,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은 자신에 대한 자기개념의 긍정적·부정적 경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방향이 결정되며 적응의 유형도 달라진다(차정림, 2002). 또한 자기개념에는 성격특질과 도식이 중심이 되지만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형성된 사람은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한다. 이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삶에 대해 만족한다. 반면,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에도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느낀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정서가 불안정하며 자신과 타인의 잘 믿지 못하고 삶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김정규, 2000; 정은순, 1993; 이미형, 2000). Tarquinio, Fischer, Gauchet와 Perarnaud(2001)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환자는 자기를 묘사하는데 긍정적인 특성을 수용하거나 부정적인 특성을 거부하는데 주저하고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자신을 더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더 잘 회상하였다. 이와 같은 알코올 중독환자는 자기개념

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송희(2003)의 연구에서는 얼굴표정을 통한 타인의 정서인식에서 알코올 의존환자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얼굴표정인식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환자의 심리적 원인으로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거나 주위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 즉,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이 때 따르는 불편한 기분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중독매체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이 가중되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과 갈등은 더욱 강화된다. 이처럼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기 존중감은 알코올 중독의 재발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지영, 1995; 정선영, 2003). 이훈진(1999)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의 적대성을 높게 평정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타인의 행동조차도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각자가 자기를 참조하여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조궁호, 1986), 알코올 환자의 부정적 자기개념은 적응적인 대인지각과정을 방해하여 타인의 얼굴 표정 등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지각자의 자기참조의 특징이 부각된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환자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지각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개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리적 안정성, 삶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개념과 관련한 대인관계에 대해 임채현(1979)은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도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취 볼 때, 알코올 중독환자가 겪는 대인관계 문제의 이면에는 이들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의 영향이 개입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환자가 타인의 얼굴 표정에 담긴 정서를 인식하는데 민감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이들은 입원 치료와 단주를 통해 일시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서 회복되지만, 대인관계 문제 등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는 재발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Danovan & Chaney, 1985; Gorsski, 1986; Annis & Davis, 1991; 성상경, 방양원, 함웅, 1993; Agoist, 1994; 김성재, 1996; 이혜경, 200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타인의 정서인식은 대인관계문제 등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알코올 중독환자의 높은 재발율에도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서인식능력 결함과 특성을 확인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력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ERT, 이수정, 2004)를 사용하여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RT는 참여자의 정서능력



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서경험과 정서자극을 인식하는 정서인식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언어적 그림자극을 제시하는 검사이다. 이는 비언어적인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인식, 정서변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적 메시지로 타인이 경험할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맥락적인 이해를 포함하고 있어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RT를 통해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의 정서인식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불어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차이도 확인하며 둘째, 알코올 중독환자군의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셋째, 세 변인들 중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울산 소재의 정신과 병원에 입원 혹은 방문한 환자 중 DSM-IV(APA, 1994) 진단 기준에 의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다른 만성적인 정신과적 질환, 기질적 문제가 확인된 사람을 제외한 35명을 알코올중독환자군으로 구성하였다. 정상군은 알코올 중독환자군의 성별, 연령, 교육기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짝짓기 하였고 정신병적 경력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치료받은 경력이 없고 알코올사용 선별검사(AUDIT)와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NAST)

를 통해 음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정상으로 평가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인지적 손상의 확인을 위해 MMSE-K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정상으로 평가된 사람만 선별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각 집단의 연령, 교육기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1. 알코올 중독환자집단과 정상인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

	알코올 중독환자 ( <i>n</i> =35)	정상인 ( <i>n</i> =35)
남/녀	31/4	31/4
연령	43.00(8.36)	42.86(7.57)
교육기간	12.74(2.44)	13.43(2.03)
MMSE-K총점	28.17(1.45)	29.10(1.04)
NAST총점	17.07(10.0)	1.72(2.78)
AUDIT총점	21.40(8.64)	8.20(6.85)

### 측정도구

**정서인식력검사 (Emotional Recognition Test : ERT).** 국내에서 개발된 정서인식검사(ERT, Maxmedica)는 정서적 내용을 피검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피검자들의 정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정서인식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언어능력이 개입되는 자극보다 비언어적 그림자극을 제시하는 검사를 사용할 것이다. 이 검사는 54개의 전산화된 그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에는 정서인식(Emotional Recognition, ER), 정서변별(Emotional Differentiation ED), 맥락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 CU)의 3가지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Ekman(1994)이 보고한 6개의 주요감정(행복, 놀람, 슬픔, 분노, 혐오감, 공포)을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서인식은 무표정한 얼굴로부터 감정가가 있는 얼굴들을 구분해내는 형식으로 긍정적인 감정 9점과, 부정적인 감정 9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8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변별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6개의 개별정서가 별로 수집된 사진들 중 주요감정들 간에 같은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변별해 내는 것으로 12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락이해 항목은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의 주요감정(행복, 놀람, 슬픔, 분노, 혐오감, 공포)으로 한 정서에 4문제가 제시되었다. 최고난이도의 문항으로 상황의 정서적 맥락을 이해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얼굴사진을 찾도록 되어 있으며 총 2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ERT검사의 총점은 54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2이었다.

**자기개념 척도.** 자기 개념 척도는 자기개념의 인지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자기 개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훈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인 신체적 자기, 개인의 도덕적인 준거체계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도덕적 자기, 개인의 자기존중감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인 성격적 자기,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개인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고, 얼마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정적

자기,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기, 그리고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능력적 자기의 6가지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 문항수는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개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훈진(1997)이 개발할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 였다.

**대인관계문제척도(Short form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 김영환, 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과 박은영(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IIP)를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와 전유경(2002)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 관여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형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4 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고 조사 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지수를 산출하였다.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의

자기개념과 정서인식력, 대인관계문제 변수에 대한 차이를 T 검증하고 각 집단의 자기개념, 정서인식력, 대인관계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 간에는 정서인식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68)=-4.434, p<.001$ ). ERT를 통한 정서인식력의 정확도에서 알코올 중독환자( $M=41.34, SD=10.09$ )는 정상인( $M=49.43, SD=3.81$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t(68)=$

표 2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의 정서인식력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T-검증

	알코올 중독집단 ( $n=35$ )	정상 집단 ( $n=35$ )	$t$		1660 (3.77)	1806 (2.88)	-1.816
	$M(SD)$	$M(SD)$		대인관계문제	95.89 (23.56)	89.26 (19.92)	1.271
<b>정서인식력</b>	41.34 (10.09)	49.43 (3.81)	-4.434***	통제지배	11.00 (3.78)	10.29 (2.82)	.895
정서인식	14.06 (4.81)	17.66 (.482)	-4.408***	자기중심성	10.37 (4.06)	10.26 (3.63)	.124
정서변별	9.60 (2.89)	11.43 (.917)	-3.566**	냉담	11.31 (4.01)	10.60 (3.47)	.789
맥락이해	17.69 (4.99)	20.34 (3.24)	-2.644*	사회적억제	10.43 (4.19)	10.14 (2.91)	.331
<b>자기개념</b>	101.34 (17.46)	110.60 (13.91)	-2.454*	비주장성	12.26 (4.88)	11.80 (3.77)	.427
신체적 자기	16.34 (2.70)	17.83 (3.33)	-2.050*	과순응성	13.63 (20.90)	11.74 (3.08)	1.934
도덕적 자기	17.29 (4.34)	18.86 (3.26)	-1.713	자기희생	15.06 (3.74)	13.57 (3.00)	1.832
성격적 자기	16.74 (3.78)	18.14 (2.81)	-1.757	과관여	11.83 (3.25)	10.83 (3.77)	1.189
가정적 자기	16.83 (4.089)	20.06 (3.60)	-3.513**				
사회적 자기	17.54 (3.90)	17.66 (2.57)	-.145				

\*  $p < .05$ , \*\*  $p < .01$ , \*\*\*  $p < .001$ .

-4.408,  $p < .001$ ), 정서변별( $t(68) = -3.566$ ,  $p < .01$ ), 맥락이해( $t(68) = -2.644$ ,  $p < .05$ )도 알코올 중독환자가 정상인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은 자기개념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68) = -2.454$ ,  $p < .05$ ). 자기개념 점수에서 알코올 중독환자( $M = 101.34$ ,  $SD = 17.46$ )는 정상인( $M = 110.60$ ,  $SD = 13.91$ )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념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신체적 자기( $t(68) = -2.050$ ,  $p < .05$ )와 가정적 자기( $t(68) = -3.513$ ,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정서인식력 검사의 각 정서에 대한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상인 간 T검증

	알코올 중독집단 ( $n=35$ )	정상 집단 ( $n=35$ )	<i>t</i>
	<i>M(SD)</i>	<i>M(SD)</i>	
행복	3.74(.61)	3.94(.28)	-1.506
분노	2.74(1.27)	2.80(1.39)	-.180
슬픔	2.34(1.19)	3.14(.91)	-3.162**
혐오	3.23(1.06)	3.69(.76)	-2.076*
놀람	3.03(1.70)	3.49(.78)	-2.041*
두려움	2.83(1.15)	3.31(.96)	-1.916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과 같이 ERT를 통해 6가지의 주요정서 각각에 대한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의 정서인식 정확도를 살펴보았을 때, 슬픔  $t(68) = -3.162$ ,  $p < .01$ , 혐오  $t(68) = -2.076$ ,  $p < .05$ , 놀람  $t(68) = -2.041$ ,  $p < .05$ ,에서는 알코올 중독환자가 정상인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행복, 분노, 두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는 알코올 중독환자군에서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들이 어떠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환자에게서 정서인식력, 자기개념은 각각의 하위변인들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문제의 경우, 하위변인인 자기희생과 과관여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인식력의 하위변인들은 자기개념의 하위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 중에는 자기중심성이 정서인식력의 하위변인 중 하나인 맥락이해와 부적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는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개념과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 중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가 성격적 자기개념과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두 변수의 하위변인들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였다.

표 5는 정상인의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이다. 살펴보면, 정상인에서 정서인식력과 자기개념의 하위변인 상관에서 정서변별과 성격적 자기개념과 가정적 자기개념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정서인식력은 가정적 자기개념이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기개념과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전반적으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알코올 중독을 설명하는데 정서인식력 변인을 1단계로 회귀모형 적합도를 확

표 4.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 ( $n=35$ )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정서인식력																	
1.정서인식	-																
2.정서변별	.80**	-															
3.맥락이해	.25*	.40*	-														
자기개념																	
4.신체적	.12	.24	-.01	-													
5.도덕적	.15	.14	.28	.35*	-												
6.성격적	-.16	-.02	-.08	.63**	.45**	-											
7.가정적	.19	.16	.20	.45**	.50**	.34*	-										
8.사회적	.14	.15	.08	.52**	.62**	.58**	.48**	-									
9.능력적	.06	.24	.15	.68**	.63**	.48**	.48**	.60**	-								
대인관계문제																	
10.통제지배	.17	.10	-.11	-.16	-.15	-.50**	-.07	-.17	.06	-							
11.자기중심성	-.14	-.15	-.40*	-.41*	-.48**	-.41*	-.44**	-.53**	-.34*	.50**	-						
12.냉담	.12	.13	.40	-.48**	-.35*	-.66**	-.41*	-.55*	-.43*	.37*	.64**	-					
13.사회적억제	.26	.16	.12	-.38*	-.21	-.74**	-.30	-.53**	-.31	.45**	.46**	.86**	-				
14.비주장성	-.01	-.08	-.01	-.43*	-.19	-.63**	-.36*	-.38*	-.27	.42*	.53**	.77**	.82**	-			
15.과순응성	-.02	.08	.03	-.33	-.04	-.54**	-.13	-.05	-.15	.44**	.08*	.41*	.52**	.57*	-		
16.자기희생	-.03	.11	.13	-.25	.02	-.39*	.13	-.09	-.08	.28	-.19	.12	.25	.19	.79**	-	
17.과관여	.11	.29	.08	-.13	-.16	-.40*	-.06	-.16	.11	.60**	.17	.27	.32	.15	.56**	.60*	-

\* $p < .05$ , \*\* $p < .01$ .표 5. 정상인의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 ( $n=35$ )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정서인식력																	
1.정서인식	-																
2.정서변별	.01*	-															
3.맥락이해	.05*	.52**	-														
자기개념																	
4.신체적	-.30	.09	.07	-													
5.도덕적	-.28	.10	.15	.48**	-												
6.성격적	-.29	.35*	.33	.47**	.63**	-											
7.가정적	-.35*	.35*	.24	.44**	.26	.47**	-										
8.사회적	-.27	.07	.07	.59**	.35*	.48**	.52**	-									
9.능력적	-.26	.14	.04	.67**	-.44**	.49**	.44**	.59**	-								
대인관계문제																	
10.통제지배	.16	-.09	-.05	-.25	-.34*	-.25	-.45**	-.11	-.12	-							
11.자기중심성	.14	.05	.30	-.54**	-.45**	-.38*	-.40*	-.52**	-.59**	.31	-						
12.냉담	.09	-.06	.22	-.36*	-.52**	-.47**	-.38*	-.47**	-.35*	.48*	.80**	-					
13.사회적억제	.02	.18	.20	-.43**	-.37*	-.24	-.41*	-.49**	-.31	.53**	.72**	.77**	-				
14.비주장성	.09	.23	.40*	-.42*	-.30	-.22	-.23	-.31	-.44**	.27	.72**	.65**	.63**	-			
15.과순응성	-.01	.30	.18	-.30	-.24	-.18	-.34*	-.32	-.29	.53**	.63**	.68**	.62**	.71**	-		
16.자기희생	-.06	.01	-.27	-.21	-.15	.04	-.35*	-.09	-.24	.49**	.17	.20	.37*	.34*	.49**	-	
17.과관여	.13	-.09	-.01	-.27	-.44**	-.31	-.30	-.18	-.29	.78**	.32	.42*	.49**	.28	.37*	.44**	-

\* $p < .05$ , \*\* $p < .01$ .

표 6.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 관계문제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 $n=70$ )

단계	예언변수	$\beta$	$R^2$	$\Delta R^2$	상관	
					Partial	Part
1	정서인식력	.175*	.175			
	정서인식	-.337			-.214	-.199
	정서변별	-.004			-.002	-.002
	맥락이해	-.159			-.151	-.138
2	정서인식력	.399*	.225			
	정서인식	-.415*			-.273	.220
	정서변별	.152			.097	.076
	맥락이해	-.062			-.065	-.051
	자기개념					
	신체적	-.018			-.015	-.012
	도덕적	-.168			-.150	-.118
	성격적	-.290*			-.251	-.201
	가정적	-.214			-.208	-.165
	사회적	.182			.169	.133
	능력적	-.070			-.055	-.042
3	정서인식력	.419	.019			
	정서인식	-.415			-.236	-.185

정서변별	.152	.088	.06
맥락이해	-.052	-.051	-.03
자기개념			
신체적	-.019	-.016	-.01
도덕적	-.180	-.150	-.11
성격적	-.219	-.163	-.12
가정적	-.206	-.197	-.15
사회적	.112	.089	.06
능력적	-.121	-.084	.06
대인관계문제			
통제지배	.152	.113	.08
자기중심성	-.141	-.093	-.07
냉담	-.004	-.002	-.00
사회적억제	-.046	-.026	-.02
비주장성	.023	.015	.01
과순응성	.030	.019	.01
자기희생	.001	.001	.00
과관여	-.003	-.003	-.00

\* $p < .05$ .

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변량의 17.5% ( $R^2=.175$   $p < .05$ )를 설명하였다. 정서인식력 변인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자기개념 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정서인식력 변인은 전체 변량의 17.5%를 설명하였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설명량이 22.5% ( $\Delta R^2=.225$   $p < .05$ ) 증가하였다. 이에 정서인식력 변인과 자기개념 변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총설명량은 39.9% ( $R^2=.399$ ,  $p < .05$ )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대인관계문제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설명량은 41.9%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

에 따라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을 유의미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정서인식력,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에 의한 판별분석결과

변인	Wilk's Lamda	F
정서인식	.778	19.429***
가정적 자기개념	.705	14.012***

\*\*\* $p < .001$ .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정서인식과 가정적 자기개념 뿐이었다. 알코올 중독을 잘 예측할 것이라 여겨지는 변인 중에

서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을 의미있게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인이 정서인식과 가정적 자기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Wilk's Lamda 값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더욱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표 8. 판별분석 분류결과

실제집단	예측된 집단		사례수
	알코올 중독	정상인	
알코올 중독	23(65.7%)	12(34.3%)	35
정상인	4(11.4%)	31(88.6%)	35
분류 정확률	77.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들에 의해 두 집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판별함수에 의해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으로 변별하는 집단의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77.1%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전체 35명 중 65.7%인 23명이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인은 35명 중 88.6%에 해당하는 31명이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인 ERT를 통해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을 알아보고, 그들의 정서인식능력, 자기개념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력 검사(ERT)를 통해 알코올 중독환자군과 정상군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정서인식력에 대한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환자가 얼굴표정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변별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낮다는 Philippot 등(1999), Kornreich 등(2003), 최송희(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에서는 측정하지 않은 맥락이해 즉, 특정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굴표정 인식을 통한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적 인식의 결합의 결과에서 장기적인 알코올섭취로 인한 뇌의 시지각 손상을 언급해왔으나,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시지각의 손상 문제 뿐만 아니라 타인에 정서에 대한 감정이입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타인의 정서를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함도 추측할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의 행복, 분노, 슬픔, 혐오, 놀람, 두려움, 6가지 기본정서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행복, 분노, 두려움의 정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슬픔, 혐오, 놀람의 정서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환자가 정상인보다 낮은 정서인식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Kornreich, Blariry, Pilippot와 Dan 등(2001)의 연구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인식의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는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인

에 대해서도 Frigerio 등(2002)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를 분노 등의 적대적인 정서로 오지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알코올 중독환자가 현실을 부정하고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 간의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중에서도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신체적 자기와 한가정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정적 자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알코올 중독환자는 정상인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불편감을 가지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인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상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알코올이 자신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음주조절에 대한 착각과 과대사고를 가지며 부정, 합리화, 투사로 일관된 사고체계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김기철, 2004; 황선미, 2010)는 보고가 있었음에 따라 알코올중독환자 특유의 방어기제인 부정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알코올 중독 환자군과 정상군 각각에서 정서인식력과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 하위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알코올 중독 환자군에서 정서인식력의 하위변인인 맥락이해는 대인관계문제 중 자기중심성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기중심성이 높을수록 맥락적 이해를 통한 타인의 정서인식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에는 자기개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자기개념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들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알코올 중독환자에게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의 결함은 자신에 대한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개념과 같은 개인의 특성적 지각체계보다는 Parsons(1998)와 Philippot 등(1999)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이 얼굴정서인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공간적 손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상인보다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서인식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 따라 ERT를 통한 알아본 정서인식력의 정확도가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상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자기개념도 포함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예측률이 가장 높은 변인은 정서인식과 가정적 자기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가 77.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치료적 함의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서 인식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ER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얼굴표정 지각 특성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알코올 중독 회복 이후 지역 사회 복귀 시에도 대인 관계의 어려움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들의 부정적 정서 인식 편향은 역기능적인 대처를 낳아 재발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환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환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치료프로그램 및 훈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환자 각각 35명이었다. 이러한 참여자 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에는 적합하나, 상관관계를 보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적은 수의 참여자로 인한 불안정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상관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며 추후의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개념과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자기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중독환자는 내면적으로 자신들이 무가치하고 부적절하게 느끼며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환자들은 주요 방어기제로서 부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가 작용할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환자의 내면적인 자아상을 민감하게 측정하는 데에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환자의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사용은 환자의 내면적 모습을 부정하려는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보고의 진실성 여부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ERT를 통한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서인식력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뇌손상 및 알코올성 치매의 지각적 왜곡과 같은 기질적 문제가 동반되어질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만성적인 환자의 뇌손상과 관련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정서적 인식능력에 대해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RT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의 낮은 정확도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RT에서의 정서인식은 무표정한 얼굴로부터 감정가가 있는 얼굴들을 구분해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코올 중독환자가 정상인보다 정서인식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가 선행된 연구(최송희, 2003)에서의 결과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타정서에 대한 적대적인 지각뿐 아니라 정서가가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적대적 지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알코올 중독자의 정서인식력의 결함에 대한 조금 더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성재(1996). 알코올리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 박현숙, 도은영 (1999). 알코올리즘 환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399-410.
- 배도희, 조아라, 이지연 (2004). ADHD 아동과 우울한

- 아동의 얼굴 표정 및 음성을 통한 비언어적 정서인식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권 제3호, 741-754.
- 성상경, 방양원, 함웅(1993). 주정중독알코올의존자들의 퇴원 후 경과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698-705.
- 이수정 (2004). 문제해결과제를 이용한 정서인식력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제 15권 3호, 65-86.
- 이미형 (2000). 집단 상담이 문제음주자 가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9(3), 315-327
- 이혜경 (2000). 심상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금주가능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9(3), 255-264.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의 귀인양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임채현 (1979). 초, 중등교사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2003). 여성알코올 중독자와 정상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혜 (2009). 정서인식력 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ERT)의 표준화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1986). 대인평가 파원의 분화: 발달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 169-198
- 차경립(2002).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송희 (2003). 알코올 의존환자의 정서인식 특성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향,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KIIP-SC)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2, 21(4), 923-940.
- 황선미 (2010). 즉흥연주 음악활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arton, J. S., Kessler, E. A., & Pape, C. L.(1999). Nonverbal Decodingskills and relationship well-being in adult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s* 23, 91-100.
- Duberstein, P. R., Conwell, Y., & Cainem, E. D. (1993). Interpersonal stressor, substance, abuse, and suicid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 80-85.
- Dursun, P., Balkan R., Cakmak, D., Gencoz, F. (2007). Recogni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in Alcohol Dependence. Master Thesis. Ankara: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 Ekman, P. (1994). All emotions are basic. In P. Ekman & R. J Davidson(Ed), *Nature of Emo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rigerio, E. Burt, D. M. Montagne, B. Murray, L. K. & Perrett, D. I. (2002). Facial affect perception in alcoholics. *Psychiatry Research*, 113, 161-171.
- Kornreich, C., Blairy, S., Philippot, P., Hess, U., Noel, X., Streel, E., Lebon, O., Dan, B., & Pelc, I., (2001). Deficits in recogni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are still present in alcoholics after mid-to long-term abstin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July, 533-542.
- Kornreich, C., Philippot, P., Foisy, M., Blairy, S., Raynaud, Dan, B., E., Hess, U., Noel, X., Pelc, I., & Verbanck, P. (2002). Impaired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in alcoholism.; *Alcohol & Alcoholism*, 37(4),

394-400.

- Monnot, M., Nixon, S., Lovallo, W., & Ross, E., (2001). Altered emotional perception in alcoholics: Deficits in affective prosodycomprehens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5(3), 362-369.
- Patterson, M. L. (1999). The evolution of a parallel process model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P. Philippot, R. S. Feldman, & E. J. coats (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317-347.
- Philippot, P., Kornreich, C., Blairy, S., Baert, I., Dulk, A. D., Le Bon, O., Streel, E., Hess, U., Pelc, I., & Verbanck, P. (1999). Alcoholics' deficit in thedecord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3, 1031-1038.
- Sandra, E. Mueller, S. E., Degen, B., Petitjean, S., Wiesbeck, G .A., & Walter, M. (2009). Gender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Problems of Alcohol-Dependent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Public Health*. 2009, 6(12), 3010-302
- Tarquinio, C., Fischer G. N., Gauchet, A., & Perarnaud, J. (2001). The self-schema and addictive behaviors: *studies of alcoholic patien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0(2), 73-81.

원고접수일: 2013년 11월 12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결정일: 2014년 2월 4일

#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Factors: Alcoholic's Emotional Recognition, Self-concep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Park Hyun-lim	Chang Mun-seon	Koo Bon-hoon
Park Hyun-jin		Bai Dai-seg
Morthearth Hospital	Dapt. of Psychology	Yeungna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Hospital

This study has been implemented to discover the differences of the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between alcoholic group and regular group, and to figure out how the alcoholic's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is associated with self-concep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For this purpose, after executing a test pertinent to the emotional recognition test, self-concep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targeting at patients diagnosed with alcoholism and to 35 normal people, the test results were analyzed.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rom the alcoholic and normal people according to the emotional recognition, self-concep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from the ERT, it was shown that alcoholic group has lower emotional recognitions than the normal group, especially in emotions such as sadness, revulsion, and fear.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two factors of physical self-concept and home-parent self-concept, were more negative in the sub-variables of self-conception.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not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as a result from investigating the relations of sub-variables for the emotional recognition, self-concep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two groups were related to emotional recognitions. The more positive the self-concept, the less the interpersonal problems occur. Finally,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alcoholic, emotional recognition, self-concept, interpersonal problems